경기학 학술기획총서 8

일제강점기 경기도민의 생활 I

– 매일신보 1910~20년대 기사 발췌 –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기획

경기문화재단

일제강점기 경기도민의 생활 I

– 매일신보 1910~20년대 기사 발췌 –

경기문화재단

| 일러두기 |

1. 해방 전의 경기도와 현재의 경기도는 〈참고〉의 비교 일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이 다르다. 먼저 경성부와 인천부는 각각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되어 경기도로부터 분리되었다. 또 전쟁과 분단으로 개성부, 개풍군, 장단군(일부는 파주시 관할구역), 연천군의 북부 지방은 휴전선 이북에 속하여 우리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한다. 고양, 양주, 광주, 시흥, 부천, 김포의 일부는 서울에 편입되었고, 강화군 전체와 부천의 많은 부분은 인천에 편입되었다. 수도권 위성도시의 발달로 양주, 광주, 시흥, 수원 등은 여러 자치단체로 분할되었다. 이런 까닭에 이 책에서는 당대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2. 이 자료집은 매일신보의 기사를 추출하여 현대문으로 옮긴 것이다.

3. 이책은 김종식(아주대 교수), 최재성(청암대 교수)이 공동 작업하였다. 짝수 연도는 김종식이, 홀수 연도는 최재성이 맡았다.

4. 1930~40년대는 2021년 상반기에 『일제 강점기 경기도민의 생활』II 로 출간할 예정이다.

〈참고〉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 비교 일람표

해방 전	현재
가평군	가평군
고양군	고양시 / 일부 지역 서울 편입
광주군	광주시 성남시 하남시 / 일부 지역 서울 편입
김포군	김포시 / 일부 지역 서울 편입
부천군	부천시 / 일부 지역 서울 · 인천 · 시흥 · 안산 편입
수원군	수원시 오산시 의왕시 화성시
시흥군	시흥시 안산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 일부 지역 서울 편입
안성군	안성시
양주군	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 일부 지역 서울 편입
양평군	양평군
여주군	여주시
연천군	연천군 / 일부 지역 휴전선 이북
용인군	용인시
이천군	이천시
파주군	파주시
진위군(평택군)	평택시
포천군	포천시
장단군	(일부 지역 파주시 편입 / 나머지 휴전선 이북)
개성부	휴전선 이북
개풍군	휴전선 이북
20개	**31개**

* 해방 전의 경성부, 인천부, 강화군 제외

| 책머리에 |

일제강점기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독립운동사와 일제의 정책사 중심으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 물론 독립운동사와 정책사도 알아야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당시 이 땅에 살았던 대부분의 민중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떠오른다. 오늘날 대중들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당대 생활사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경기도 지역 생활사를 서술하기 쉽지 않다. 연구도 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자료 마저도 정리된 것이 없다. 이 책을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당대 자료를 모아 지역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것을 시간 순서에 따라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 당대 생활사에 대한 갈증을 우선 해결하도록 하는 일이 이 자료집의 역할이다.

당대 자료는 우선 신문·잡지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 가운데 매일신보는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중단 없이 발행되었다. 이는 3.1운동 이후 1920년에 발행되기 시작하여 1940년에 폐간된 조선·동아일보 등 다른 한글 신문과 구별되는 점이다. 다른 한글 신문들과 달리 시종일관 발행된 이유는, 바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기 때문이다. 일제는 매일신보를 그들의 선전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매일신보는 일제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공백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발행되어 경기도의 여러 일을 실었기 때문에 좋은 자료 원천으로 삼을 수 있다.

매일신보 경기도 기사 중 생활사와 관련된 기사만을 추출하고, 그것을 현대문으로 바꾸어 입력하는 일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게다가 지면의 제약이 있어서 우선 1910~20년대로 한정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매일신보 기사 중 생활사와 관련된 기사를 추출하고 분류하는 데 기준이 필요했다. 그래서 목차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했다. 생활사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당대 사람들이었기에 먼저 인구, 농민, 상인 등을 맨 앞 부분에 배치했다. 아울러 사람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으므로 농업, 상업, 공업, 축산업, 임업, 부업, 어업 등의 항목을 설정했다. 한편 인간

의 힘으로 어쩔 수 없으나 인간의 존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건, 의료, 위생, 자연재해, 가축 전염병 등도 무시하지 않았다. 식민지라는 당대 생활 환경에 비추어 통제와 선전, 인력과 자금 동원도 추려내었다. 그밖에도 생활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을 추가해서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식민지 조선의 생활사를 기대하고서 이 책을 대하는 분들 가운데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내용이 단편적이고 충분하지 않다고 여길만한 내용들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 첫걸음이라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2020년 9월

김종식·최재성

3 일러두기
4 책머리에

1부 주제 분류

1. 인구 10
2. 농민과 농업 13
3. 상인과 상업, 시장, 물가, 도량형, 무역 30
4. 광공업, 공산품, 회사 35
5. 축산업 38
6. 임업, 산림 45
7. 부업 49
8. 어업, 수산업, 제염 57
9. 교육 60
10. 보건, 의료, 위생 75
11. 자연재해, 가축 전염병 87
12. '교화'와 이재민 구호 94
13. 세금과 예산 101
14. 교통, 통신 105
15. 금융과 금융기관 111
16. 지주와 농회, 소작인과 소작료 114
17. 통제와 선전 115
18. 지방제도, 지방사무 121
19. 인력과 자금 동원 126
20. 종교 128
21. 문화와 체육 129
22. 수도, 난방, 전력 131
23. 토지 133
24. 민족운동 135

Contents

2부 지역 분류

1. 가평 138
2. 개성, 풍덕 142
3. 고양 230
4. 광주 245
5. 김포, 양천, 통진 252
6. 부천, 부평 266
7. 수원, 남양 274
8. 시흥, 과천, 안산 310
9. 안성, 양성, 죽산 319
10. 양주 333
11. 양평 346
12. 여주 354
13. 연천, 삭녕, 적성, 마전 360
14. 용인, 양지 366
15. 이천, 음죽 373
16. 장단 383
17. 파주, 교하, 문산 391
18. 평택, 진위 403
19. 포천, 영평 415

16. 장단

1) 광업

해풍부원군 윤택영은 장단군 등지에 금광을 개채할 계획으로 목하에 준비 중인데 곧 착수한다. (1910.10.07)

2) 교육

장단의 사립화성학교에서 27일 오전 12시에 졸업식을 거행했다. 화성학교의 재학생은 60여명이고 졸업생은 9명이다. (1916.03.30)

장단 공립보통학교에서는 1917년 봄부터 여자부를 신설하고 1학년생 약 60명을 모집하여 사립 한영우韓英友서원 옛터에 분교실을 설치하고 교수할 계획이다. (1917.03.20)

장단군 읍내 공립보통학교 여자부는 신입생이 50여 명이다. (1917.04.17)

장단 대남면 사립명성학교에서는 3월 31일 전교내에서 제 6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1920.04.11)

사립명성학교에서는 제 9회 졸업식을 학교 교실에서 거행하였다. 학생과 직원이 착석한 가운데 개회사, 축사, 졸업생 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922.04.18)

장단군 진남면 도라산리에 진남공립보통학교 설치지령이 9월 6일 있었다. 12월 1일부터 개교예정이다. (1923.09.13)

3) 교통

12월 18일 오전 10시경에 경의선 장단역을 출발한 제133열차가 경성 기점 44마일 부근을 지날 때 나이 10세된 아이가 돌을 던져서 3등차의 유리창이 깨어지며 승객 1명이 머리에 경상을 당했다. 열차가 정거한 후 아이를 체포하여 관헌에게 넘겼다. (1927.12.21)

4) 교화

장단군 읍내 '국어야학회' 주최로 1월 15일 오후 7시부터 제1회 통속강화회를 개최했다. 참석자 360여 명에 달했다. 강연 제목은 조선인 유희遊戱 중 금지할 사항이다. (1917.01.21)

5) 기부

장서면 고랑포에 근일 지화가 종종 있어 동민이 매일 밤 5,6명씩 순행함, 재산도 여유롭고 망명이 자자한 한응두, 김영섭이 추운 밤에 야순의 곤란함을 생각해 20여원을 김상근에게 출급해 야순하는 제원의 요기비에 보용하게 했다. (1912.12.13)

송서면 면장 윤홍구는 다리를 수축할 때 24원을 기부했고, 가난한 10집의 세금을 자담 상납했고, 도로 수축할 때 자기의 토지를 기부했다. (1914.02.20)

6) 기후

장단군에 10월 17일에 첫서리가 내렸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10일이 늦었다. (1917.10.19)

7) 농업

장단군의 맥작은 3할 이상의 증수이다. (1911.06.28)

8) 대두

장단군에서 강원도 철원에 이르는 평야에서 나는 유명한 장단 대두는 산액産額 다량이고 품질이 양호하다. 종래 임진강 선편으로 인천으로 수송했으나, 철원까지 경원선 개통 결과 경성 상인의 상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1913.01.29)

장단군 대두 생육상황은 금융조합 직영전, 감독전, 조합경작지가 모두 양호한데, 직영전 감독전은 과린산석회 1반보 3관 혹 4관을 주고, 조합경작지는 1반보 5관을 사용했다. (1913.09.27)

일본 이출물 중 저명한 장단 대두의 재배 구역은 장단군 외 7군으로, 작부 반별은 전체 대두 작부 면적의 8할, 수확고는 전체 수확고의 8할 5분을 점함, 총 작부 반별은 6,476정인데 수확은 48,428석이다. (1914.04.01)

장단금융조합에서 새로운 대두를 보였는데, 각 지역의 금융조합에서 들여갔다. 그 양은 25,000석이고 작년에 비하면 3배 증가한 것이다. (1914.10.06)

장단대두는 최근 폭락해 5원 20전이 되었다. 처음에 비하면 3원 이상 떨어졌고, 지금도 하락세다. 원인은 불경기 때문이다. (1914.11.08)

대두의 우량품종(장단대두)의 개량 보급을 위해 1921년도부터 장단군의 3개면에 채종전 20정보를 경영했다. 추수기에 강우와 불량한 날씨로 조제가 지연되었으나 연내에 이를 종료했다. 112석 1반당 수량 5두 6승을 5월 파종 전에 교환해 실행할 예정이다. (1924.01.09)

9) 도량형

장단군에 농상공부 촉탁원이 출장하여 강화講話를 한 결과 이번 양기量器 614개, 도기度器 438개, 형기衡器 170개의 구입 신청이 있었다. (1913.07.08)

10) 부역

고랑진간 2리 34정의 도로 개수는 장단군청 감독 하에 부역에 의해 지난달 말일에 공사를 시작해 공사를 급히 시설하는 중이고, 또 개성군 토성 장단군 벽란도간 1리 12정의 도로도 부역으로 지난 달 1일부터 기공하여 곧 준공한다. (1912.07.11)

11) 산림

장단군 군내 경영의 면유面有 모범림에 사방공사를 착수했다. (1917.04.13)

장단 임야조사를 시행하고 정리를 완료하였으므로 임야 조사서 및 도면을 관청에 비치하고, 불복한 사람은 공시할 예정이니 총독부 임야조사계원에게 불복 신립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22.07.05)

12) 세금

장단군에서는 각종 세금과 부가금까지 완납했다. (1911.12.10)

장단군에서는 1915년도 제2기 주세와 연초경작세, 역둔토 소작료 등 전부 전액을 11월 29일 완납했다. (1915.12.04)

장단군 군수의 순회 설유 결과 1915년도 제1기분 지세가 12월 15일에 완납되었다. (1915.12.17)

13) 소방조

장단군에 소방조가 독일식 펌프 1대를 사 가지고 8월 15일 조직되었다. 그 동기動機는 장단역 앞 여관하는 차원실(52)의 곳간에 7월 30일 불이 났는데, 차원실은 소방조 없음을 유감으로 여겨 40원을 소방기구 매입비로 제공하여 이를 기본으로 조직된 것이다. (1917.08.23)

14) 소송

일본인이 같이 사는 조선인의 돈을 조금 속여먹고 싶어 도장을 훔쳐 조선인 명의로 돈을 빌렸다. 이를 알고 증거를 제출해 소송했지만, 조선인은 패소하고 말았다. (1914.11.17)

15) 신분제

장단군 대강면 독정리 고명룡(농업, 38)은 같은 동리 허걸(양반, 39)과 함께 구화리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반상班常의 다름으로 계급쟁투가 생겨 허걸을 살해했다. (1923.06.28)

16) 위생

9월 29일부터 5일간 자혜의원의 순회의원이 진료를 시행했다. 진료 받은 환자가 일본인 2명, 조선인 201명 내에 남자 174명, 여자 27명, 위장환자가 제일 많다. (1912.11.01)

장단군 진남면 도라산리 무녀巫女 전영희(56)는 8월 30일 오후 토사병에 걸려 콜레라 의심이 있어서 조사중이다. (1919.09.03)

9월 17일에 장단군 장도면에 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1919.09.20)

17) 유치운동

장단군 경찰서는 현재까지 동내면에 있었는데, 청사가 협소하여 지난 5월부터 청사 확장한다는 말이 있었다. 군내면 주민들은 기지를 기부하고 인부를 기부하여 경찰서 신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그 후 상사의 명령이 있어서 진남면 동장리 장단정거장 근처로 이전한다고 하여 진남 면민들은 9백 호 면민에게 2원가량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2천원을 기부할 터이니 경찰서를 이전하라고 운동중이다. 군내면민들은 경찰서가 이전하면 군청도 장차 이전할 것이므로 군내면은 필경 농촌에 불과하게 되겠으므로 군내면장 유용준 등 9명이 상경하여 경기도 내무부장, 경찰부장에게 진정했다. 그러나 상사의 명령이라 목적을 달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당국자는 말했다. (1921.08.21)

18) 인삼

부군 폐합 실시의 결과 행정구획 기타에 변경이 생겼다. 홍삼전매법 5조에 의해 인삼의 특별경작구역을 경기도에서는 개성, 장단으로 결정, 3월 1일부터 실시할 것으로 총독부 고시 제52호로 발표했다. (1914.02.26)

홍삼전매법 제8조에 의해 1914년 수삼 수확 조정의 기일을 개성 8월 10~31일, 장단 8월 20~31로 정해 어제 관보로 발표했다. (1914.08.11)

19) 일본어

장단군 사립 화성학교에서 하기 휴업을 이용해 사립계몽학교와 연합해 일본어 강습을 하기 위해 제1회 연설회를 계몽학교에서 개최했고, 제2회 연설회는 화성학교에서 개최할 것이다. (1914.08.02)

장단 국어(일본어)야학회에서 교수 결과 일본어를 조금 이해하는 자가 70~80명 증가했다. (1917.03.06)

20) 일선융화

장단군 진서면 사인士人 우종익, 이희덕, 이우현 등의 발기로 신해辛亥 금사唫社의 예를 모방하여 개성, 장단, 기타 부근의 사람들을 연락하고 을묘금사를 결성했다. 8월 31일(천장절)에 문제(월출어동산지상)로 시문을 창수하고, 소수의 상품과 약간의 오찬으로 할 계획인데, 참가자 파다하다. (1915.08.17)

장단 보통학교 안에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군내 유지 및 일반 인민을 모아 충군애국하는 정신과 국민적 사상 계발을 위해 '기미가요' 창가唱歌를 교수하게 했다. (1917.02.03)

21) 잠업

군청에서 지난 12일부터 군내 유지를 회동해 잠업 강습회를 열고 실지 교수한 후 15일에 잠업 강습원에게 증서 수여식을 행했다. 실습생이 50여 명에 달하고 일반 인민들도 잠업을 각기 경영하기로 준비 중으로 경내 잠업이 대발전을 보이고 있다. (1912.03.23)

22) 재해

장단에 24일 오후 3시 10분부터 천둥 번개 먹구름 소나기와 콩알 만한 우박이 쏟아졌다. (1919.09.26)

1929년장단 방면에 임진강이 증수되어 문산역 철도선로 약 1마일에 1척 5촌 가량이 침수되어 1일 오전 경성으로 향하는 열차는 다시 장단역으로 돌아갔다. 임진강의 증수는 46척에 달하여 극히 위험한 상태이고, 고랑포에는 침수한 가옥이 다수이다. (1923.08.03)

1929년장단은 교통 두절되고 유실가옥 4채, 이수된 가옥 169호, 통남 수리조합 제방이 파괴되었다. (1924.07.23)

1929년장단군 진남면 수해 의연금이 끊이지 않아 누계 243원 20전이다. (1924.08.12)

1929년봉동-장단 사이 경의선 중 수해로 파손되었던 곳에서 12일 화물열차가 탈선되어 열차 불통이 되었다. (1924.08.13)

23) 저축

장단군에서 작년 3월 체신국의 계획과 경기도의 장려에 의해 관내 각 학교(8개 학교, 6개 공립보통학교, 2개 심상소학교) 아동의 저축을 극력 장려한 결과 금년 3월 말 현재 성적이 441명, 689.84원에 달했다. (1927.05.21)

24) 조선어

장단군청 일본인 직원들이 선어연구회를 조직하여 매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회의실에서 공부했다. (1917.03.06)

25) 종교

장단군 화장사에서 청년 승려를 교육하기 위해 학식이 뛰어난 한용운을 교사로 모셔왔다. 학교의 이름을 화산 강숙華山講塾이라 이름 붙이고 1910년 9월 23일에 개학했다. 숙장은 이경재, 숙감은 김지순이 맡았다. (1910.11.27)

장단군 화장사 승려 20여 명의 관광단은 그저께 밤에 입경해 어제 총독부를 방문했다. (1914.04.30)

장단군 청림교도 윤지형은 4, 5년 전부터 개성, 장단 등지로 배회하며 갑자년에 정도령이 충청도 계룡산에 나타나 불비를 내려 세상을 전멸을 시킬 것인데 청림교를 믿으면 재앙을 면하고 정도령이 천자가 될 때 고관대작에 임명한다며 속이고 금전을 취해 징역 1년을 받았다. (1924.11.21)

26) 지방사무

장단군 동도면 인민들이 면장 이윤원이 공사에 어둡기 때문에 자격이 부족하니, 지금 면장을 개차하고 덕망 있는 자를 새로 면장으로 임명해달라고 경기도청에 청원했다. (1910.12.08)

고랑포 김병직은 1년 전에 동장으로 시무하다가 경비로 자기 소유 140원을 임시 사용했다가 동장 해면 후, 신임 동장과 일반 동민에게 그 금액을 수렴하여 달라했으나 조처가 없어 변호사 川內卯市에게 위임했다. 위임한 변호사가 인민에게 41원을 빼앗아 김씨가 헌병 분대소에 고발했다. (1912.02.18)

장단군 진동면 면장 김준은 납세의무, 농사개량, 법령 등을 열심히 지도해 모범이 될 만하다. (1914.05.03)

장단군 각 면서기 제1회 연구회를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군내면 사무소에서 실시했다. 군수 이명환이 문부文簿 상 처리와 민적취급 수속을 일치하도록 설유했다. (1915.12.04)

27) 체육

장단군 유지들이 체육장려회를 조직하고 각 면에 지부를 설치했다.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각종 운동을 한다. (1917.05.04)

28) 축산

장단군 가금家禽품평회가 고랑포공립보통학교에서 20~21일에 열렸다. 표창식은 20일 회장 앞뜰에서 개최되었다. 닭 출품은 70점, 계란의 출품은 50점이었다. (1927.03.25)

29) 행사

2월 11일 장단군 보통학교 안에서 학생 및 일반 인사 3백여 명이 모여 (기원절-인용자) 축하식을 거행했다. (1917.02.14)

장단군에서는 31일 오전 (천장절-인용자) 축하회를 마친 후, 남녀학도의 운동을 하다가 오후 8시부터 제등행렬을 시작했다. (1917.11.04)

17. 파주, 교하, 문산

1) 공산당

파주가 고향인 김정환(36)은 1927년 8월경 소련 공산대학을 졸업하고 귀향하여 표면 단체인 농인사를 조직하고, 다시 개성의 계몽학원 관계자와 비밀리에 공산당 결당식을 했다. 이후 평소부터 압박을 받아오던 성成 중계의 서원에 1928년 10월 26일에 방화하고, 또 파주 우계(성혼) 종손 성흥경의 집에 방화하여 천여 원의 손해를 냈는데, 공산당으로서 이같이 직접 행동(계급타파)하기는 처음이다. (1929.06.30)

2) 광업

금광에서 석탄 원료가 발견되어 1일 1만 근 이상을 채굴하고자 한다. (1912.05.05)

3) 교육

교하군 일본인 서기 저오무부猪俣武夫는 임명 이후로 교육을 협찬하여 매일 사퇴여가로 사립 선성학교에서 일본어과를 가르치고 있어, 학생들의 성취에 도움을 주고 있다. (1910.12.02)

교육칙어에 대해 파주 피남학교 교사 윤원혁은 생도에게 열심히 베끼게 하고 과업 전에 봉독시킨다. (1912.03.06)

파주군 문산공립보통학교에서 12월 10일 신축 낙성식을 거행했다. (1917.12.14)

파주군 탄현면에서 5월 16일 탄현공립보통학교 설립총회를 열었다. (1921.05.18)

파주군 광탄면에서 4월 1일부터 융화회를 설립한 후 교육부, 서무부, 운동부를 설치했다. 면내 서당 개량을 위시하여 일반 면민의 산업에 이르기까지 대개혁을 할 것이다. 7월부터 학계를 설립하여 교육자금에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1921.06.25)

파주군 천현면에 학교가 없어 면내 유지의 발기로 보통학교기성회를 조직하고 기부금을 모집하던 바 현재 2천 원의 응모가 있었다. (1921.08.30)

파주군 와석면 교하공립보통학교 교사는 옛 교하군 관아 건물을 사용했으나 최근 교실의 협소, 기타 사세로 인해 학교 및 군 당국으로부터 개축의 의논이 일어나 그 경비를 현재 통학구역인 와석 아동衙洞 및 청탄면의 일부 인민에게 부담키 위해 수차 관계 각면장, 면협의회원, 학교평의원 기타 유지 인사를 회집하여 협의했다. 서부인 청석면 인민은 그 면의 남반부가 현재 위치에서 20리 이상의 원거리에 격하여 아동의 통학이 불능하므로 이 개축 기회에 와석, 청탄 양면의 중앙 지점을 택해 이축하기를 희망하고, 그 동부인 아동면 인민은 와석면과 일대의 하천을 격하여 아동의 통학이 불편하고 또 본 면은 본군의 제2 요충인 금촌역 부근의 신新 발전지대를 공控하여 본면의 전부, 월롱면의 반부半部, 탄현면의 일부와 접하여 호구의 배포와 교통의 편리 등 제반 형편에 의하여 이 땅에 보통학교를 설치함이 시세의 요구상 급절急切 불가완不可緩의 사정이라고 하여 근일近日에 금촌보통학교 설립기성회를 조직하고 면민이 일치 협동하여 본년도 호별할戶別割 10배의 표준으로 각 그 설립비를 담당하기로 하고 한편으로 공립 허가의 수속을 군郡당국에 요청했다. 군 당국도 이 사정을 요해하나 목하 경비 부담, 기타 형편상 신설 또는 이전이 모두 시기상조라 하여 당분간 현재 위치에 개축하여 공동 유지함이 가하다는 뜻으로 설명했다. 인민 측에서는 현재 위치를 청탄, 와석 양면 중앙에 옮기고 아동면 금촌에 1교를 신설하기를 간원懇願한다. (1921.12.07)

파주시에서 교실부족으로 40여 명의 입학을 미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 중이다. (1922.01.29)

파주공립보통학교는 올해 새로 학교를 건축하기로 했는데, 비용은 마을사람들이 나누어 내기로 했다. 그러나 가난한 집이 내는 비용은 면제시켜주고 나머지 사람들이 추가로 기부해 그것을 부담하기로 했다. (1922.02.26)

파주군 재산가 박만용은 청년 자제를 독려해 월용면 제일학교에 학교 건물 1동을 기부했고, 교사의 일가족 생활비용을 전부 자담했다. (1924.03.18)

파주군 아동면 금촌학교 기성회와 금촌금융조합 사이에 학교건축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기성회장(정영진)이 실제적 사람이 없는 허위의 성명을 면面 호적부에 등재하고 이들의 명의로써 수천원의 금액을 부당대차한 결과 면장까지 파면되고 취조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이제 확실한 소식통에 따르면, 기성회에서 금융조합에 대해 자금융통의 임시적 수단으로 면내 거주자로 하여금 금융조합에 다수 가입케 하여 그 명의로써 금전을 차입함은 사실이나 기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1925.04.22)

4) 교통

파주군수는 대규모로 군내 옛 도로를 수선하고 새 도로를 개착開鑿할 계획으로 조사했다. (1911.01.13)

5) 교화

파주군 관민 유지의 발기로 교풍矯風 장려계를 조직하기 위해 5월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20여 명이 출석하여 발기인회를 개최했다. (1917.05.17)

6) 구휼

(파주군 진림면의 도성학이 빈민 약 1백 50명에게 백미 2승과 나무 1바리씩 기증했다. (1916.02.17)

경기도 파주군 이중혁씨는 그 선대로부터 가산이 풍족하지는 못했지만, 자선심이 있어 흉년을 당하면 미곡을 빈민에게 적선하였더니, 이중혁씨도 그 부조의 풍도風度를 물려받아 흉년에 자선을 자주 하였고, 그 동생 이중●씨와 공동으로 자기 집의 토지를 팔아 미곡을 동리의 빈민들에게 적선하였다. (1920.05.26)

문산 이재민에 대한 구제의 연금은 28일까지 모금된 것으로 약 900원이 모였다. (1922.08.31)

7) 금융조합

4월 23일 문산포금융조합에서 제11회 정기총회가 있었다. 조합원 250여 명과 군수, 경찰서장 외 다수의 내빈이 임석했다. 업무성적은 창립 이래 초유의 기록을 짓고, 흡집吸集한 예금은 21만여 원을 웃돌았다. (1921.05.08)

8) 기업전습소

교하군에서 1910년 11월부터 여자 기업機業 전습소를 개설했는데, 성적이 양호하여 더욱 열심히 하는 중이다. (1911.03.18)

9) 농업

군청에서 일반 농민의 농업지식 계발을 위해 농담회를 설행할 것이다. 도청에서 흥미를 위해 순회교사를 파송, 축음기를 사용하게 한다. (1912.11.29)

농사강화회를 개최한 후 즉시 독농가의 집담회를 개최해 농사에 관한 의견 또는 종래의 경험담을 교환할 예정이다가 중지했으나 농사강화회에 참집자 일동이 협의 후 개량도종 보급, 패발稗拔, 해충구제와 백수발취, 연제조와 사용의 보급, 도급기의 사용을 장려, 육축우의 개량증식, 잠업과 식림의 장려, 부업을 장려해 근검저축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1912.12.27)

10) 농한기

고양군, 파주군의 남부 지방에서 북한산을 지나 귀래한 사람에 의하면 그 지방은 파주군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개 산간 지역으로 경운의 편리함이 없고, 각 집이 모두 연료를 채취하고는 무리 지어 화로 주변에서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누며 날을 달랜다고 한다. (1912.02.21)

11) 맹수

집에서 기르는 소가 산짐승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했다. 근방에 표범도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헌병에서는 구제를 실시했다. 헌병 10명, 보조원 10명, 조선인 25명이 실시했는데, 잡은 것은 새끼늑대 1마리와 노루 1마리뿐이었다. (1918.11.07)

12) 모범부락

파주군 임진면 남동, 인정풍곡은 모범부락이다. 공동 뽕나무밭, 공동 저금 시설이 있다. 지주 경성의 이상옥은 소작인의 자발적 개량을 환영해 우량 소작인을 표창하고 순후회의 취지를 찬성해 논을 공동 경지로 기부, 내년부터는 도급기를 소작인에게 대여해 성적이 우량한 마을에 급여할 예정이다. (1924.11.30)

13) 백동화

파주 문산포금융조합에서 관내 유통하는 백동화 조사 결과 250원 가량이었다. (1911.06.21)

14) 부업

파주군 입승생산판매조합에서 입승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5월 7일 입승제작판매자현상추첨회를 열었다. 추첨자가 34명이고, 현상품은 소미 3석 8두 5승이다. 1등 2인 5두, 2등 5인 2두, 3등 10인 1두, 4등 14인 5승씩이다. (1921.05.12)

15) 부역

교하, 홍천 도로 수해 복구공사 사역 인부 총수 교하군 역부 6,716인, 홍천, 양평군 합 13,526인이다. (1912.12.03)

교하군에서 도로를 확장 수축하는 중인데, 사립 보통학교장이 매 일요일에 학도들을 이끌고 응역應役했다. (1911.11.29)

교하군의 군도郡道, 면도面道 개수된 것이 연장 약 11리 15정 남짓인데, 이에 요要한 인부는 36,400명에 달하고, 일반 인민은 노동자에게 술, 떡, 담배, 기타 음식물을 기증했다. (1911.12.23)

교하 학생 부역에 대해 경기도장관은 각 부윤 군수에게 통첩하기를 각 학교장에게 이첩하여 모범으로 삼도록 했다. (1911.12.12)

4월 24일 파주공립보통학교에서 학생 전부가 통학생과 통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문산리-파주간에 파괴된 교량을 가설했다. (1921.05.08)

16) 삼림

파주군 삼림보호 조합은 재작 24일 문산 공립보통학교에서 총회를 개최해 1924년도 조합 세입세출을 결의하고, 소나무 쐐기벌레 구제 공로자의 표상 수여식을 거행했다. (1924.02.27)

17) 소방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갹출하여 즐통喞筒을 구입하고, 장정을 소방수로 모집하여 비상 소방에 종사케 했다. (1911.12.05)

18) 소송

파주군 천현면 가좌리 자운산에 율곡 이이의 묘소가 있고, 그 산판 안에는 율곡의 친형 죽곡 이선의 분묘가 있는데, 근래 삼림령 실시 이후 죽곡 자손이 산판 소유권을 점득占得코자 하여 율곡 자손이 그 산판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15.04.28)

조병덕은 그물을 산 뒤 백근삼에게 매일 돈을 받으며 그물을 빌려 주었는데, 이재선이란 사람이 그 그물을 빼앗아 갔다며 소송했다. 이재선은 백근삼이 돈을 갚지 않자, 그물을 대신 가져간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소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1918.01.13)

19) 소작

경기도 파주군에 사는 김익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간지를 개척해 논으로 만들면, 30여 년간 영구 소작권을 주고 1/10씩 소작료를 받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김익환은 그 땅을 최석범에게 인계했고, 최석범은 소작료를 1/4로 올려버렸다. 이에 우학명, 우덕영외 20여 명이 김익환을 피고로 경성지방 법원합의 2부에 고소했다. (1916.01.22)

20) 수리조합

파주군 임진면 사아리, 마정리, 장산리를 구역으로 한 임진수립조합은 4일 성립으로 8일 관보官報로 고시한다. (1921.11.08)

21) 시찰단

파주군 지방자치회는 6월 4일 문산공립보통학교에서 발회식(총회)을 거행했다. 참석원이 50여 명이었다. 지회, 분회 조직 방법을 결정했다. 6월 7일부터 18일까지 11면에 지회 분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1921.06.11)

파주군내 일본시찰단이 대분大分연합공진회 등을 시찰하고 4월 28일 귀선했다. 4월 30일 문산공립보통학교에서 단원 대표 2명이 감상을 강연했다. 청강자는 군내 각 구장 및 유지 수백 명이었다. (1921.05.06)

파주군 시찰단이 귀래한 후 5월 15일 시찰단 일행이 문산공립보통학교에 집합하여 파주지방자치회를 조직했다. (1921.05.18)

22) 양계

파주군에서는 종래 장날을 이용하든지 혹은 지방 출회 닭 상인과 거래하여 경성의 시장가에 비해 가격차가 있어 개량란과 재래란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거래되었다. 이에 개량란의 사양을 장려할 목적으로 4월부터 경성을 표준으로 하고 공정 근량斤量가격으로 판매를 실시했다. (1923.08.31)

23) 연초

파주군수가 관내 농민 중 면허 없이 연초를 경작하는 사람 수를 조사하여 도청에 보고했는데, 그 수가 1,229명이었다. (1911.10.10)

24) 우역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에서 우역이 발생하여 경찰서에서 소독방법에 진력 중이다. (1911.09.30)

1월 상순 이래 각지에 아구창이 발생하여 무서운 속도로 전파하는 우역은 1월 26일에 파주군 탄현면에 병든 소 한 마리가 발생하여 드디어 경기도에도 전파되었다. 이곳은 사방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교통 차단에 편리한 지점이니 방역防疫 상에 다행이다. 발병원인은 발생때부터 약 1주일 전에 정거장에 끌고 간 일이 있었으니 아마 평북 방면에서 부산으로 통과하는 병우病牛의 병독이 전염된 듯하다. (1919.02.20)

25) 우편

파주군 유지의 발기로 군내 통신시설에 관한 청원서를 5월 10일부로 당국에 제출했다. 그 항목은 1.문산우체국 시외배달 증회, 2. 교하우편소 이전, 3.관할 구역 변경 (1921.05.13)

26) 위생

수원 자혜의원에서 의원을 각 부군에 파송해 5일부터 5일간 파주에서 일반 환자를 진료했는데 환자 134명 (남자 117명, 여자 17명)이다. (1912.10.20)

파주경찰서에서 7월 3일 파주의생회를 열고 임원을 개선했다. (1921.07.08)

경기 위생과에서 '폐디스토마'(토질) 근절을 위해 게와 가재가 '폐디스토마' 병균의 매개물이 된다는 것을 선전했다. 오는 1~3일은 관내에, 5~9일은 게, 가재가 가장 많은 파주 지방에 부원을 파견해 게, 가재 박멸을 실시할 것이다. 매 호에 20마리 이상 씩 무조건 잡게 할 것이다. (1924.08.26)

임진강 쪽에 발진병이 만연하여 20일 아침까지 여자 14명 남자 11명 합 25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고통 중이었다. 소식을 들은 위생과에서는 토문기사를 대동하고 현장에 급히 내려와 방역에 노력 중이다. (1926.01.21)

발진병 환자중 두 명은 사망하였고 아직 부근에 전염될 염려가 적지 않다고 한다. 토문기사는 발진병이 전염되기 쉬운 병이고 방역도 어려우므로 경성 사람들도 안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1926.01.22)

파주지방의 발진병은 갈수록 만연하여 파주는 4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1926.02.02)

발진병이 발생하여 파주의 문발리에 심히 만연할 것이라는 소리가 있었으나, 이 마을에는 빈민부락이 없었고, 발생 당시부터 관민이 힘을 합쳐 예방작업을 했기 때문에 크게 만연되지 않았다. (1926.02.11)

오랜 장마로 전염병이 염려되는데 파주 문산 지방은 100여 명이 위장병, 각기에 걸렸

고 부근에 적리, 기타 전염병이 다수 발생했다. 경찰부 위생과는 수해가 있는 각지에 임시 청결법을 시행해 주택, 하수구 등을 소독하고 특히 우물은 '구로 루석'(석회)라는 표백분을 넣어 약 3시간을 냅두어 소독한다. (1927.07.29)

27) 유희

매일신보 파주분국은 11월 3~4일에 걸쳐 양주군 보광사 단풍놀이를 계획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1917.10.30)

28) 일본어

파주 공립 보통학교에서 유지의 기부로 12월 1일부터 일본어 및 산술 야학회를 부설附設했다. (1911.12.24)

파주군 조리면 죽원리 사립 보명학교 교감 이병규, 교원 심의학, 조리면 서기 송문숙은 학교 내에 국어(일본어) 보급야학회를 설치하고 10월 10일부터 매일 밤 3시간씩 일본어 산술, 한문 기타 식림의 필요한 것을 교수한다. (1913.10.29)

29) 잠업

잠업강습회의 김포의 50명은 90여 명, 교하의 35명은 60여 명에 이르렀다. (1912.03.01)

파주군청에서 11월 3일 도 기술원이 출장하여 식상植桑 장려계획에 관해 강화했다. 출석원은 각 면, 학교, 헌병소장, 각 구장, 양잠조합, 금융조합원, 기타 주요 소작인 등이다. (1917.11.08)

30) 재해

경기도청에서 농작물의 가뭄 피해 정도에 대해 각 군 보고 중 파주군의 피해는 수도 7할, 육도 3할, 조 6할, 콩(豆) 8할, 소채 9할, 면 3할이다. (1919.08.13)

파주는 호우로 20여 척 증수해 수백 가옥이 마루까지 침수했고 계속된 증수 예상으로 전 주민이 피했다. (1924.07.22)

문산역 구내는 22일 전부 복구되었고 문산 천철교 부근이 23일부터 개통될 것이다. 300여 척의 마정리천 철교는 교량이 파괴되어 복구가 오래 걸리므로 응급책으로 24일부터 도선, 도보로 연락하도록 시설하고자 한다. 전신, 전화 불통으로 아직도 북부 지방의 피해는 불명해 전신대가 활동 중이다. (1924.07.23)

수해로 경의선이 두절되어 기자는 21일 만철회사의 호의로 매일신보 사진반과 같이 '모타츄로리'에 편승해 문산역에 향했다. 수해지 중 문산만 소식이 판명되고 북쪽은 통신이 두절되어 전혀 소식을 알 수 없다. 문산역과 부속건물이 탁류 위에 점점히 나타나 있었다. (1924.07.23)

문산 압사자 6명, 익사 6명, 죽은 가축 다수로 법원리에서는 2집 가족 6명이 전멸을 당하고 무너진 가옥이 40여 호에 달한다. (1924.07.23)

문산과 장단 사이의 도보, 도선 연락은 25일부터 개시될 듯하다. (1924.07.24)

군청, 면사무소, 경찰서는 즉시 양식, 연료를 준비해 학교 등 안전한 곳을 개방했으나 수용이 불가할 정도로 피난민이 많았다. (1924.07.24)

문산은 20일 36척이나 증수되어 경찰서, 소방대가 즉시 경종을 울렸으나 주민들이 집을 못 떠나고 가산을 운반해 구조선이 강제로 끌어내다시피 하여 전부 피난시켜 1명의 실종자도 없었으나 가축의 피해는 심하다. 하정통 가옥은 지붕 위까지 침수 40여호, 마루 침수 100여 호, 피난 이재민 1,300여 명이다. (1924.07.24)

7월 22일 파주군청에서 서무과장 이하 청원들이 밥을 지어 이곳에서 밥 먹은 사람이 2,200여 명으로 한 번에 2섬씩 밥을 지어주며 밥을 크게 만들어 1인당 1개씩 주었다. (1924.07.24)

수해로 파주군 진남면 수리 조합의 관개 구역이 황무지로 변해 면내 유지의 발기로 수해 구제회를 조직해 이재민 구조에 노력 중이며 각 방면의 동정이 끊이지 않아 합 115원 70전을 모았다. (1924.08.08)

임진강에도 47척 5촌의 증수가 되어 파주군 내 연안 일대의 어촌 125호는 물속에

잠겨 면역소, 경찰서에서는 피난민을 강 언덕에 수용하고 밥을 지어 먹이는 중이다. (1925.07.15)

파주군 내에도 침수 가옥 5백 호, 사망자 3인이다. (1925.07.21)

31) 저축

파주군 파평면에서 헌병출장소장과 면장, 이장들이 야업장려회를 조직하고 면민들로 하여금 새끼꼬기를 시작하여 판매한 돈이 천여 원에 이르렀다. 그 돈을 면 저금으로 보관하였다. (1915.01.12)

32) 전신전화

23일 전신, 전화가 전부 개통되었다. (1924.07.24)

33) 종교

교하군 유생 정대선, 송희효 등이 은사금 이자로써 향교를 유지하여 유학을 일으키기로 통문을 발송했다. (1911.02.05)

파주군 마장리에서 공자의 영전影殿을 건축하고 10월 12일 영정 봉안식을 거행했다. 이 영정은 4백여 년전 조선왕실에서 이종구의 선조에게 하사한 것이다. 당일 참배자는 부근 유림과 파주공립보통학교 직원, 생도 등 천여 명에 달했다. (1917.10.20)

34) 지방

교하군에 '부군회'가 조직되었는데, 새끼줄을 꼬아 팔아 2백 원을 만들고, 이것으로써 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삼고, 인민이 순회 경작하여 수확 중 2/3는 소작인에게 지급하고, 1/3은 공유재산의 기본금을 만들기로 했다. (1911.03.15)

조용숙(40)은 파주군 광탄면 호미리와 구룡리 이장을 겸했는데, 광탄면장 백남홍의 명으로 이민에게 길닦는 공사 부역 대납금 징수에 종사하던 중 1913년 동짓달부터 1915년 7월 초순까지 징수한 돈 40원 58전을 횡령했다. (1915.08.20)

35) 지주

2월 18일에 파주 농사장려회 지회 및 농우회 총회를 개최한다. (1917.02.14)

36) 축산

파주군청에서 축산조합을 조직하여 봉일천에 우시장을 경영할 방침으로 4월 11일부터 사무를 개시하고 종래 봉일천리 경영의 우시장 부지 기타 건물 등의 양여를 교섭하니 이민里民측에서 거절하던 중 군수 조정으로 시장에서 매매수수료 50전 내에 20전을 리에, 20전을 중매인으로, 10전을 조합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리里 부채 543원을 조합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5월 16일부터 조합에서 시장을 경영하기로 결정했다. (1913.04.23)

축우 장려 결과 증식이 빨라지고 축우조합설립지의 축우의 수가 점점 정확하고 "우적"도 정리됨, 파주군은 1912년 말에 2,054두, 2년 말에는 2,844두로 800두 증식했다. (1914.01.30)

파주 축산조합에서는 축산 강화회와 강습회를 설행해 지도하고 각 면에 출장해 각 호에 설명했다. (1914.05.01)

37) 태형

파주군 강희연은 본년 음력 7월 6일 동군 유산림에서 인부를 사역해 소나무 30그루를 도벌한 일이 산림 간수 이덕유에게 발각되었다. 강희연은 함께 도벌했던 김선태와 공모하고 돈 1원을 이덕유에게 뇌물로 주었는데, 이덕유는 이 돈을 받고 김선태와 강희연을 봐주었다. 이 사실이 들통나 이덕유는 징역 6개월에, 나머지 두 명은 태형 90대에 처했다. (1916.10.04)

38) 품평회

파주군에서 농산물품평회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린다. (1920.11.14)